

12장. 범죄자와 피해자의 특징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목적들은 그러한 것들이다. 이제, 그들이 어떤 [정신] 상태에서, [5]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지 말해 보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실행될 수 있고, 자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죄를 범한다. 더 나아가, 발각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고, 또는 발각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또는 처벌받더라도 그 처벌이 자신들에게 또는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득보다 덜하다고 생각할 때 죄를 범한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일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불가능한 것으로 [10] 보이는지는 [따로] 나중에 말할 것이다(왜냐하면 이 점은 모든 [종류의] 연설들에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 능한 사람들,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 소송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그리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처벌 받지 않고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스스로가 앞에서 말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15]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부류의 친구나 하수인이나 공범자가 그들에게 있을 때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어떤 일을 범행하고도 발각되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나 재판관들의 친구일 때에도 [처벌 받지 않고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경계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취하기 [20] 전에 화해하고, 재판관들은 친구인 사람들에게는 온정을 베풀어 완전히 석방하거나 가벼운 벌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모나 형편이] 죄과(罪過)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약한 사람은 폭력 혐의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못생긴 사람은 간통 혐의로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아주 공공연히 그리고 많은 눈앞에서 범행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왜냐하면 전혀 가능한 일로 생각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기 [25] 때문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토록 엄청난 일들, 그런 종류의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그렇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경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

들은 다들 익숙한 질병처럼 또한 익숙한 범죄에 대해 경계하고, 아무도 여태껏 걸리지 않았던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도 조심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적이 없거나 적이 많은 사람들도 [처벌 받지 않고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의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서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30] 생각한다. 그리고 뒤의 사람들은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어서 발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은폐할 방도나 장소를, 또는 풍부한 처분수단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다.

그리고 발각되더라도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키거나 그 시기를 늦추거나 재판관들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처벌 받지 않고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35] 완납을 무기한 연기시키거나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가난해서 잃을 게 아무것도 없을 사람들도 그렇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다. 이득은 분명하거나 크거나 가까이 있지만 처벌은 작거나 불분명하거나 멀리 있는 | 사람들도 그렇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이 이로움과 동등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다. 예를 들어, 참주의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는 실질적인 이익이지만, 처벌은 비난뿐인 사람들도 그렇다. 그리고 반대로, 범죄가 칭찬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그렇다. 예를 들어, 제논의 경우처럼 부친이나 모친을 위해 [5] 동시에 복수한 결과가 일어나고, 처벌은 벌금이나 추방 등에 이를 때 그렇다.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범하고, 두 가지 마음 상태에 있다. 단,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격에서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발각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 받지 않고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실패한 사람들도 그렇다(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10] 호전적인 사람들의 경우에서처럼, [항상] 다시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은 당장에 있지만 괴로움[고통]은 나중에 있거나, 이득은 당장에 있지만 처벌은 나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런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욕구하는 모든 것들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에게 괴로움이나 처벌은 당장에 있지만, [15] 즐거움과 이로움은 나중에 있고 더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왜냐하면 억제할 줄 알고 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연에 의해, 또는 강요에 의해, 또는 자연[본성]에 의해, 또는 습관에 의해 실행한 것처럼 보이고,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기보다는 실수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처벌 받지 않고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 작량(情狀 酌量)[형벌의 경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그렇다.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부족함을 느낀다. [20] 가난한 사람들처럼 필요한 것에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부유한 사람들처럼 과도한 것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그리고 아주 평이 좋은 사람들과 아주 평이 나쁜 사람들도 그렇다. 앞의 사람들은 그럴[죄를 범할] 사람들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뒤의 사람들은 더는 평이 나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죄를 범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에 관련하여 죄를 범한다. 그들은 필요한 것들을 [25] 얻기 위해 또는 과도하게 갖기 위해 또는 즐기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다.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뒤의 사람들로부터는 [원하는 것을] 빨리 획득할 수 있고, 앞의 사람들의 복수는 더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르케돈[카르타고]인들로부터 약탈했던 사람들의 경우처럼.

그리고 조심하지도 경계하지도 않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은 죄를 범한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발각되지 않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30] 안일한 사람들에게도, 법적 절차를 취하는 일은 면밀한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솟기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들은 이득을 두고 다투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의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은 속담에 나오듯, ‘미시아인들 같은 약탈품’[쉬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도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과 자주 입은 사람들에게도, 앞의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뒤의 사람들은 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쪽 사람들 모두 다 경계심이 없기 [35] 때문이다. 그리고 중상[헐뜯음] 받은 사람들이나 중상 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재판관들이 두려워 이들을 설득하는 길을 택하지도 않고, [이 길을 택한다 하더라도] 증오 받고 경멸 받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373a 그들의 조상들이 | 또는 그들 자신들이 또는 그들의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또는 조상들에게 또는 자신들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했다거나 하려고 했다는 평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죄를 범한다]. “악행에는 평계만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다. 그리고 적들과 친구들에게도, 뒤의 사람들에게는 [범행이] 쉽고, [5] 앞의 사람들에게는 즐겁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이들은 법적 절차를 취하려고 시도하지 않거나, 화해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려도]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이나 벌금의 완부를 주시하면서 시간을 쏟아봐야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외국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그들은 가벼운 것[벌금]으로 화해하고 쉽게 고소를 취하기 때문이다. [10] 그리고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 또는 [현재] 자신들이 당한 것들과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남들에게] 죄를 범하곤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당했을 때, 이는 죄를 범하지 않음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남들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와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나쁜 짓을 했거나 하려고 했거나, 지금 하려고 하거나, 장차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15] 이는 즐겁고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음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범하면] 친구들, 또는 자신들이 경탄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주인들, 또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은 죄를 범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범하더라도 재판관들로부터] 정상 참작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불평했던 사람들, 이전에 불화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 칼리포스가 디온과 관련하여 했던 일도 [20]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일들은 죄를 범하지 않음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더는 숙고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당하게 될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 아이네시테모스가 [485년, 이웃나라를 정복하여] 〈...〉 예측시킨 켈론에게, 자신도 하려고 했던 것을 그가 앞질러 했기 때문에, 코타보스 게임의 상품을 보냈다고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쉽게 보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죄를 범한 후에 [장차] 많은 올바른 것들을 [25]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 테살리아의 이아손이, 많은 올바른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몇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에 관해서 죄를 범한다]. 모든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곤 했던 것들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숨기기 쉬운 것들에 관해서도, 그러한 것들은 음식물처럼 빨리 소비되는 것들, [30] 또는 형태나 색에서 또는 혼합에 의해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여러 곳에 숨길 방도가 풍부한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운반하기 쉽고 조그만 장소들에 숨겨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것들과 비슷한 것들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피해자가 말하길 수치스러워하는 것들에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자신이나 [35] 아들들의 아내들에 대한 성폭행. 그리고 법적 절차를 취하는 사람이 소송하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 법한 것들에 관련해서도, 그러한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고 용서를 받는 것들이다.

이로써, 어떤 상태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것들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죄를 범하는지 거의 말했다.

13장. 법의 분류, 범죄의 자발성

1373b | 모든 그런[범죄] 행위와 옳은 행위를,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출발하면서 분류해 보자. 옳은 것들과 그런 것들은 법들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법은 한편으로는 [한 국가에] 고유하고[특수법],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적이다[공통법]. 고유한 것은 [5] 각각의 국민에 의해 자신들을 위해 규정된 것을 말하고, 이것 중 어떤 것은 쓰이지 않은 것[불문법]이고, 어떤 것은 쓰인 것[성문법]이다. 그리고 공통된 것은 자연에 따른 것[자연법]이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떤 [자발적인] 공동체라든가 계약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짐작하는 것으로서 자연에 의한 공통된 옳음과 그름[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어, 소포클레스의 극에 나오는 안티고네가 명백하게 말하는 점이다. [10] 자연에 의해[자연법상] 옳은 것이므로, 금지된 일이라 하더라도 폴리네이케스를 물어주는 것이 옳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것[신들의 불문율들]은 지금 어제만이 아니라, 늘 어느 때나
살아 있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도 혼이 든 것[생물]을 죽이지 말라며 그렇게 [15]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에겐 옳고 누구에겐 옳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만물의 법으로서, 널리 다스리는 에테르를 통해
끝없는 햇빛을 통해 끊임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키다마스도 《메세니아코스(메세니아 연설)》에서 <“신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보냈다. 자연은 아무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들[옳은 것들과 그른 것들]은 개인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즉,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공동체에 관련하여 [20] 또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른 행위들과 옳은 행위들도 두 가지 의미에서 죄를 범함과 옳은 것을 행함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한 명의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를 상대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간통하는 사람과 폭행하는 사람은 특정 개인에게 죄를 범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죄를 범한다.

[25] 이렇듯, 온갖 그른 행위들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중 어떤 것들은 공동체에 관련되어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한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범죄를 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거론해 보자. 범죄를 당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행위자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뜻한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앞에서 자발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범죄를 당하는 사람은 [30] 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자기 의지에 반(反)하여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해로운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앞에서 말한 것들로 미루건대 분명하다. 또한 그 자체로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전에 말했고, 자발적인 행위들은 알고서 행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모든 고소들은 공동체[공익]나 개인[사익]에 관련하여 있고, 모르고서 [35] 자기 의지에 반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나 자발적으로 알고서 죄를 범한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뒤의 사람들에서도 때로는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때로는 [격정이나 분노의] 감정에 의해 죄를 범하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분노에 관해서는 감정들에 관한 논의에서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것들을 어떤 [마음] 상태에서 선택하는지는 앞에서 말했다.

1374a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다고는 | 종종 인정하면서도 죄목[소송 쟁점]이라든가 그 죄목에 관련된 것[행위]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져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훔쳤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먼저 때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함께 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간통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훔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전(神殿)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훔친 것이 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 또는 침범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유지를 침범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적들과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반역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관련하여, 절도가 무엇인지, 폭행이 무엇인지, 간통이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 고자 할 때, 옳은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10] 어떤 사람이 죄가 있고 악한지 아니면 죄가 없는지에 관련하여 쟁점인 것들이다. 왜냐하면 악함과 죄가 있음은 [의도적인] 선택에 있고, 그러한 단어들은 모두 폭행과 절도처럼 [의도적인] 선택을 더불어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때렸다고 전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을 위해, 예를 들어 굴욕을 주거나 스스로 즐길 목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15] 폭행한 것이다. 또한 몰래 가져갔다고 전적으로 훔친 것은 아니고, <그가 훔친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스스로 전유(專有)할 목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훔친 것이다. 다른 경우들도 이런 경우들과 마찬가지로이다.

옳은 것[적법행위]들과 그른 것[불법행위]들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즉,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법에 쓰여 있는 것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이다). [쓰여 있는] 법[성문법]들이 규정하는 [20] 옳은 것들과 그른 것들에 대해서는 말했다. 법에 쓰여 있지 않은 것들로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 한편으로, 그것들은 덕과 악덕의 과도에 따른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해 비난과 칭찬, 불명예와 명예, 그리고 포상이 주어진다(예를 들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일, 친구들에게 [25] 도움을 주는 일 따위).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개별적인 쓰여 있는 법[특수한 불문법]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공정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정은 쓰여 있는 법을 넘어서[초월하여] 옳은 것이다. 이는 더러는 입법자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더러는 그들의 의도에 비롯되지 않은 것이다. 의도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것을 몰랐을 때 일어난다. 의도에 비롯된 것은 [30] 그들이 [불법행위들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고, 보편적으로 말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무한히 많아 [정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쇠붙이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만한 크기이고 어떤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지의 경우처럼. [그것들을 모두] 열거하려면 평생의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만일 어떤 행위가 [정확히] 규정될 수 없는데도 입법의 필요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35] 그래서 반지를 낀 사람이 손을

1374b 듣거나 때리기조차 한다면, 쓰여 있는 법[성문법]에 따르면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 실제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바로 공정이 관련된다.

공정이 앞에서 말한 것이라면, 어떤 종류의 행위들이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지 분명하다. 관용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공정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공정은 [5] 실수[과실]나 범죄를, 실수나 우발적인 일을 같은 값의 처벌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일은 계산을 넘어서[예기치 못한] 것이고, [행위자의] 악한 성품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고, 실수는 계산을 넘어서[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악한 성품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는 [계산된] 욕망[탐욕]으로 [10] 말미암아 [범죄자의] 악한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들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도 공정하다. 그리고 법이 아니라 입법자에 주목하는 것, 말[법조문]이 아니라 입법자의 생각[의도]을 헤아리는 것, 행위가 아니라 선택에, 부분이 아니라 [15] 전체에,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늘 또는 대체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주목하는 것도 [공정하다]. 그리고 겪었던 일들 중 나쁜 것들보다는 좋은 것들을, 그리고 주었던 것보다는 받았던 좋은 것들을 더 기억하는 것도 [공정하다]. 그리고 범죄를 당했을 때 참는 것도 [공정하다]. 그리고 행위[폭력]보다는 말[이성]에 의해 판단되길 바라는 것도 [공정하다]. 그리고 재판정으로 [20] 가는 것보다는 조정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도 [공정하다]. 조정자는 공정한 것을 보지만, 재판관은 법을 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공정함이 우세하도록 조정자가 창안되었다. 공정한 것들에 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 두자.